

“구속력 있는 규칙 있어야” vs “기존 법·기술 표준 우선”

〈오픈AI·엔트로픽〉

〈구글 딥마인드·메타〉

빅테크, AI 규제 입장 차

英 의회에서 기업에 AI 안전 문제 질문 회사 내 압력·안전 평가 한계 있어 빅테크, 추가 사고 가능성 부인 안 해 AI안보연구소 권한 문제 논의도

오픈AI·엔트로픽·구글 딥마인드·메타가 영국 의회에서 인공지능(AI) 규제 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오픈AI와 엔트로픽은 법으로 정한 의무가 필요하다고 했고, 구글 딥마인드와 메타는 새 법보다 기술표준과 기존 법을 앞세웠다.

14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영국 하원 기업통상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AI 기업 출신 연구자, 기업 4곳의 정책 책임자, 정부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AI 안전 문제를 물었다.

부스-스미스 엔트로픽 유럽·중동·아프리카 정책 총괄은 “구속력 있는 규칙이 있어야 하고 자율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일관되게 믿어왔다”고 말했다. 톰 더프고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전경.

/Aethonatic-Wikimedia Commons

든 오픈AI 유럽·중동·아프리카 정책 부사장은 “최첨단 AI의 위험을 모두 자율 약속에 맡기는 것은 좋은 장기 계획이 아니다”라며 사고 보고 의무화를 제안했다.

반면, 오언 라터 구글 딥마인드 선임이사는 “표준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롭 서먼 메타 글로벌정책 부사장은 “위원회는 백지에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법을 출발점으로 삼자고 했다. 다만 AI안보연

구소가 예산과 권한을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도 했다.

기업들에 앞서 증언한 연구자들은 회사 안의 압력을 문제 삼았다. 오픈AI에서 안전 평가 업무를 이끌었던 스티븐 애들러는 “위험하다”는 말을 쓰지 말라는 압력, AI의 이점을 부풀리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회사가 위험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다른 회사는 저 회사가

이미 했다’며 다음 걸음을 정당화한다”고도 했다.

AI가 일반 소프트웨어와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든 코드를 하나하나 시험하는 기존 소프트웨어처럼 AI를 검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애들러는 “AI는 한 줄씩 손으로 짰 것이 아니라 키워낸 것에 가깝다”며 “이 줄 때문에 거짓말을 했으니 이 줄을 고치자”는 식의 일은 지금 AI에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AI는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며 “이것이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I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까지 “죽은 척”하고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모델끼리 안전성을 비교하거나 명백히 위험한 모델을 가려내는 것은 때때로 가능하더라도 “지금의 평가에 기대기는 분명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추가 사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부스-스미스 엔트로픽 총괄은 지난주 공개한 사고 9건 외에 더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했고, 더프고

든 부사장도 “이미 통보한 사고가 몇 건 더 있으며,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통제를 잃었을 때의 대책을 묻자 기업들은 조건을 달았다. 더프 고든 오픈AI 부사장은 “모델이 우리 통제 안에 있다면 배포를 멈추겠다”면서도 “다른 곳에서 운영되는 모델은 우리가 늘 통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서먼 메타 부사장은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게 공개한 모델에서 뒤늦게 위험이 드러나면 “그것은 앞선 과정에서 실패가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AI안보연구소의 권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리엄 번 위원장은 “AI안보연구소에는 모델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을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헨리 드 조에트 영국 AI안보연구소장은 “우리는 어떤 모델에도 된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캐트 리틀 영국 내각사무처 사무차관은 영국의 AI 시험이 기업과 외국 정부의 자발적 협조에 기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보민 기자

kbn@metroseoul.co.kr



metro

KT, ‘AI 전용회선’으로 대규모 데이터 전송

400·800Gbps 대역폭 지원
AIDC 사업자 등에 적용 확대
초고속·초저지연 서비스 강화

KT가 인공지능(AI)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AI 데이터 전송을 위한 ‘AI 전용회선’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과 관련 인프라 확대에 따라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가 전국에 분산돼 데이터센터 간 대용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다.

이에 KT는 기존 대역폭(100Gbps) 대비 최대 8배로 확대한 AI 전용회선을 출시해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번 전용회선은 400Gbps, 800Gbps 대역폭을 지원한다. 전국의 광 케이블 인프라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와 같은 각 거점을 연결해 전송 지연을 최소화 하는



KT 관계자들이 AI 전용회선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KT

게 강점이다.

초저지연의 핵심은 APN(스마트폰이 통신사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 기반의 광 중심 네트워크 구조다. APN은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광통신과 전기의 변환을 최소화하여 지연시간을 줄여준다. 특히 고객 환경에 맞춰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로와 장비를 설계해 대용량 데이터를 더욱 빠

르게 전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분산된 AI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KT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전용회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 고객의 네트워크 환경에 맞춘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msjo@

LG CNS- H KDDI, 아태지역 B2B 공략

아태지역 AX 사업 ‘맞손’

LG CNS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간 거래(B2B) 공략에 나선다.

LG CNS는 일본 통신기업 KDDI와 아태 지역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LG CNS가 보유한 AX 역량에 KDDI의 글로벌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를 더한 것이 핵심이다. 일본 3대 통신기업 중 하나인 KDDI는 아태지역 내 15개국에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양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사업 발굴을 목표로 협력한다. LG CNS의 에이전티 AI 플랫폼 ‘에이전티웍스’와 로봇 전환 플랫폼 ‘피지컬웍스’ 등을 KDDI가 보유한 아태 지역 제조, 물류, 유통 분야 고객에게 제공한다.

동남아 지역 스마트시티 시장도 진출한다. LG CNS는 도시통합관제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과



LG CNS 통신/유통/서비스사업부장 박상균 전무(오른쪽)와 KDDI 비즈니스그룹 사업본부 마츠우라 켄타로 부사업본부장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 CNS

글로벌 스마트시티 사업 이행 노하우를 제공한다. 여기에 KDDI의 통신 인프라 기술과 사업 역량을 통합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

앞으로 양사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등 사업대상 지역에서 신사업을 발굴한다. 또한 각 사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해 공동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NHN ‘우파루 오딧세이’ 3주년 대규모 업데이트·행사

NHN은 컬렉션 소셜네트워크게임(SNG) ‘우파루 오딧세이’ 출시 3주년을 맞아 신규 속성과 지역 확장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기념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0월 출시된 우파루 오딧세이는 다양한 캐릭터 ‘우파루’를 수집·육성하고 자신만의 마을을 꾸미는 게임이다. 수집 요소와 독자적인 전투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출시 이후 누적 우파루 소환 횟수 1억건을 돌파했다.

NHN은 지난달 30일 진행한 3주년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속성 ‘저주’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기존 속성과 연계한 새로운 전투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 연내 ‘모두의 AI’ 선보인다

34개 기업·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카톡 이용자 기반 국산 AI 기술 결합

카카오가 34개 기업 및 기관과 손잡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서비스 ‘모두의 AI’를 연내 선보인다. 카카오톡의 이용자 기반과 국산 AI 기술을 결합해 일상적인 질문부터 검색·예약 등 실제 업무 처리까지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AI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14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토 2026’에서 모두의 AI 서비스 개발 방향과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

모두의 AI는 카카오톡이나 별도 웹 화면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대화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아이와 함께 방문할 전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면 AI가 날씨와 이동 거리, 동행 인원 등을 대화를 통해 확인한다. 이후 주변 식당을 추천하고 조건에 맞는 후보를 비교해 예약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컨소시엄 참여 15개사와 열라이언스 19개사 등 총 34개 기업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운영과 AI 작업 흐름 관리를 담당한다. LG유플러스는 AI 모델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운영을, LG AI연구원은 자체 AI 모델 ‘엑시원’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U+, 가을야구 대비 야구장 통신망 점검

잠실구장 네트워크 안정화 실시
통신 설비·트래픽 제어 등 점검

LG유플러스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대비해 잠실야구장 통신망 점검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잠실 야구장은 이번 시즌 경기를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다. 많은 관중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

먼저, 지난 13일 플레이오프 개막을 앞두고 경기장 내·외부에 설치한 안테나 환경을 최적화하고, 현장 품질 측정을 실시했다. 또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트래픽 제어와 파라미터 최적화를 거쳤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더라도 불편 없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내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5G 장비의 경우 상용화 초기 대비 약 1.5배 확대 설치했으며, 내부 LTE 신호를 넓고 균일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주기적으로 교체했다.

고객이 불편을 느끼기 이전에 노후화된 와이파이 설비도 점검 및 교체했다. 특히 주요 경기 일정에는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왔다.

한편, 잠실야구장은 44년간 운영되며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구장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잠실야구장 포스트시즌에는 전 좌석(2만3750명) 매진을 기록했다.

/조민선 기자